

제15차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와 지역축제

일시 2021.12.15 (수) 14:00 - 17:00

장소 작은공연장단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5)

주최 |



주관 |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



제15차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와 지역축제

일시 2021.12.15(수) 14:00 - 17:00

장소 작은공연장단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5)



프로그램 일정

시간	순서	세부내용	비고
14:00-14:03	개회	포럼 개최 및 행사 안내	이선미
14:03-14:33	발제	문화도시와 지역축제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장 / 문화학 박사
14:33-15:23	토론	토론자 발언	
15:23-15:40	휴식	휴식 시간	좌장 - 김현경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15:40-16:4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의견 교환	
16:40-16:45	마무리	행사 마무리	

제15차 문화도시포럼

문화도시와 지역축제

일시 2021.12.15 (수) 14:00 - 17:00

장소 작은공연장단 (강릉시 경강로 2046번길 5)



— 목 차

발제	문화도시와 축제	7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 / 문화학 박사)	
토론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33
	김문란 (단오제사무국장)	
	문화도시와 강릉국제영화제	39
	노대식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장)	
	문화도시에서의 축제는?	43
정운성 (강릉문화원 지역문화팀장)		
	강릉 축제의 변화는 시민으로부터	47
	최진영 (문화민회 회장)	

발제

문화도시와 축제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 / 문화학 박사

문화도시와 축제

2021. 12. 15.

윤성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교장 / 문화학 박사

I. 전통사회에서 축제의 역할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승리의 기념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일탈을 통한 숨통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위기의 극복을 기념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파괴와 새출발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만남과 교류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축제의 역할



통과의례

원형적 축제의 특성과 정의

- ✓ 제의성 (기원, 제례, 의식)
- ✓ 경연성 (경연, 경쟁)
- ✓ 일탈성 (무아경, 비일상성)
- ✓ 유희성 (놀이, 춤, 노래)
- ✓ 집단성 (공동체, 참여)
- ✓ 자발성 (주도적, 주체적)

- 특정한 공동체가
- 공동체가 합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원을 담아
- 공동체가 가진 특화된 자원을 소재(Theme)로
- 일정한 시기에
- 상징적인 장소에서
-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 펼치는 정례적인 문화 행사로
- 일상을 넘어선 예술활동과 놀이를 통해
- 일상적 삶을 통해 손상된 정서의 치유와
-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 공동체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 본성적인 공동체 문화활동

원형적 축제의 기능



- ✓ 소속감, 일체감의 체험
- ✓ 두려움의 극복을 통한 정서적 안정
- ✓ 일상적 삶에서 축적된 긴장의 해소
- ✓ 사회적 존재로의 승인 (통과의례)
- ✓ 신과의 합일을 통한 안정감의 획득
- ✓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확인
- ✓ 공동체의 역량(부, 힘, 지혜)을 과시



극복, 회복, 조화를 통한
사회적 치유가 가능

II. 현대 축제의 이해

현대 사회의 축제는 전통사회 축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II. 현대 축제의 이해

(1)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의 힘



(스페인 바르셀로나 - 인간탑 쌓기)

하나의 지역 또는 특정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그 위기를 이겨냈을 때 축제는 만들어졌다.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와 재난을 이겨냈을 때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기원과 기념의 장이 되어왔다. 축제는 한 지역 또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한 사회의 제도화되지 않은 규칙을 사회의 관습과 질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며, 공동체의 노력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한다.

II. 현대 축제의 이해

(2) 한 지역의 문화적 총체를 발견할 수 있는 행사



공동체 수준
예술적 역량
문화마인드
역사와 문화의 수준
문화에 대한 관점
풍습과 민속
지역의 자원
경제적 수준

(일본 삿포로 눈축제)

축제는 축제 개최지역이 지닌 문화적·예술적 역량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며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 풍습과 민속, 문화재와 문화유산,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한편으로 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특산물, 행정의 역량, 지역 거버넌스의 성숙도, 주민공동체의 결속력과 자발성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총체적 면모와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된다.

II. 현대 축제의 이해

(3) 지역과 지역민(공동체)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문화프로젝트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축제)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된 일탈적 공간과 일탈적 행위를 통해 지역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며, 일상적인 지역의 장소들과 친숙한 활동들을 축제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일상의 문화적 변모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축제적 경험은 일상적 행위와 공간에 대한 문화적 채색의 효과를 일으키며 일상적 삶의 문화적 고양을 가능하게 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고의 축제는 반복되는 일상에 영향을 미쳐 일상 속에서 축제가 작동하게 만들고 연중 축제를 준비 하며 축제의 힘으로 일상을 살아서 생동하게 만드는 축제이다.

-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제, 허용된 일탈을 통해 일상을 발견한다
- 일상적 공간, 일상적 활동을 낯설게 보기, 일상적 공간에 대한 문화적 변용
- 일상적 삶과 공간에 대한 문화적 채색

II. 현대 축제의 이해

(4) 인간, 사회, 공동체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만드는 현대적 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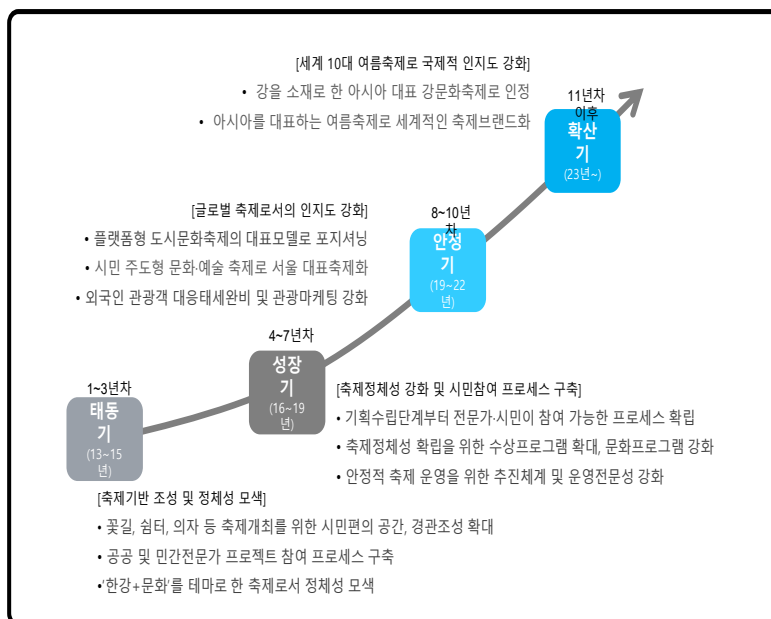
(미국 버닝맨 축제)

- 신과의 합일, 숭고함의 추구, 공동체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과시적 활동
- 함께 만드는 위대함, 숨겨진 제의성의 잔존

전통 사회의 원형적 축제는 공동체의 결속을 넘어 자연과 우주라는 절대적 존재와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관계 회복을 통해 사회적 치유를 가능하게 했다. 축제는 일상적 삶에서 시도하기 힘든 압도적인 집단적 힘을 결집하고 과시하며 그 결과물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제의적 장치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집단 의례, 집단 연행과 같은 공동체의 행위는 우주적 존재와의 합일을 위한 숭고함의 추구를 반영하는데, 현대사회의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전통 축제의 중심이 되었던 제의성이 다양한 형태로 잠재되어 있다.

II. 현대 축제의 이해

(5) 축제는 살아있는 문화유기체



축제는 태동기, 성장기, 안정기, 확산기의 성장과정을 거치며 보살피주어야 하는 시기부터 스스로 성장 하는 시기를 거쳐, 지역에 도움을 주며 지역을 풍요롭게 가꿔나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성장 단계 별 성장 속도와 역할,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변화되면서 성장한다. 성장한 축제는 안정적인 축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다.

II. 현대 축제의 이해

(6) 문화생태계의 기반으로 거대한 문화의 숲을 지키는 토양



축제는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통해 성장하고 확장된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축제는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에 문화의 숲을 만들어내는 촘촘한 숲의 네트 워크를 통해 그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 축제는 지역 문화생태계를 지탱하는 숲이며 토양이 된다.

마치 영화 아바타의 거대한 생명나무처럼
문화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뿌리를 키우는 토양이 된다

III. 문화도시와 축제

문화도시의 시민활동은 **참여**에서 출발합니다.

시민 참여활동은 **공동체 자산**을 만들어내고

축적된 공동체 자산은 문화도시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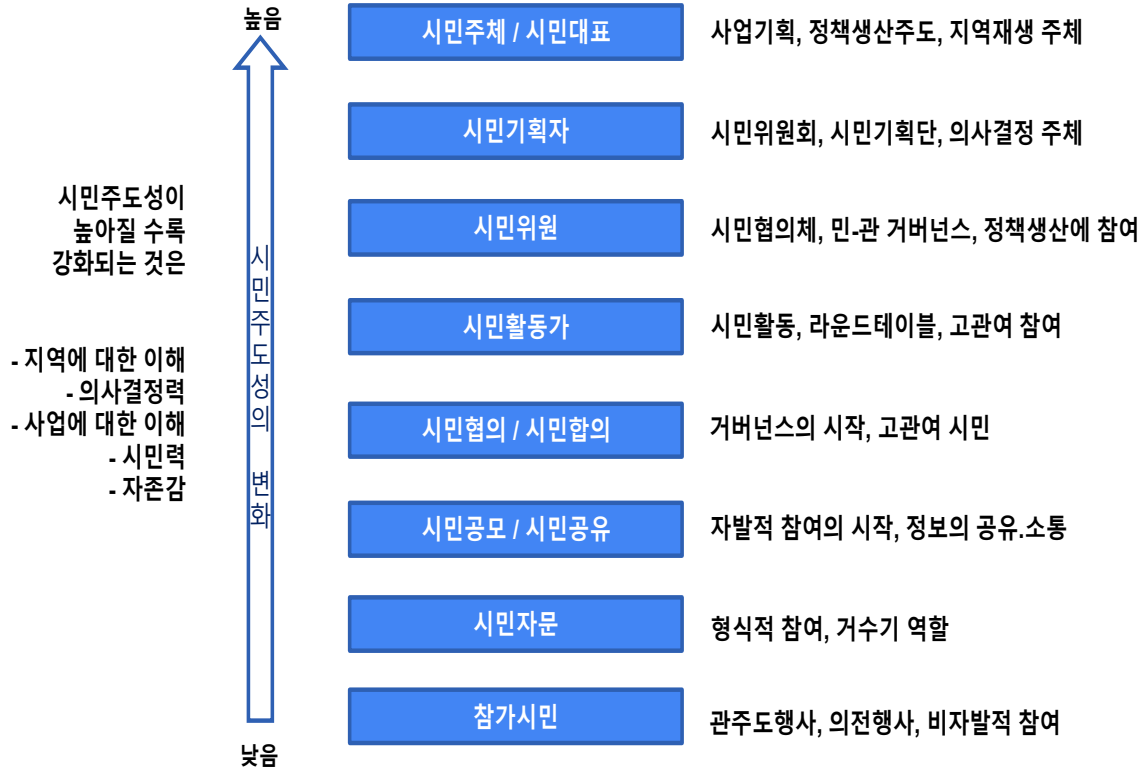
나무를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결국 문화도시는 **자발적 시민참여 활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문화도시의 축제는 문화도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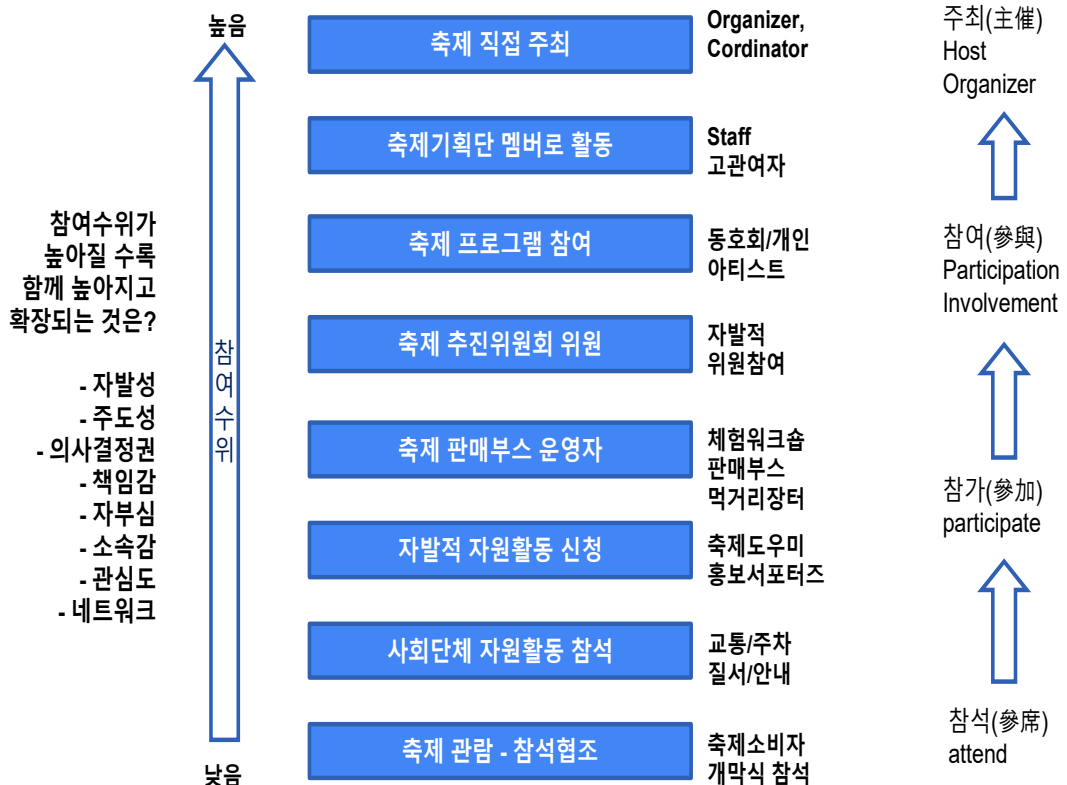
III. 문화도시와 축제

문화도시 사업에서 시민참여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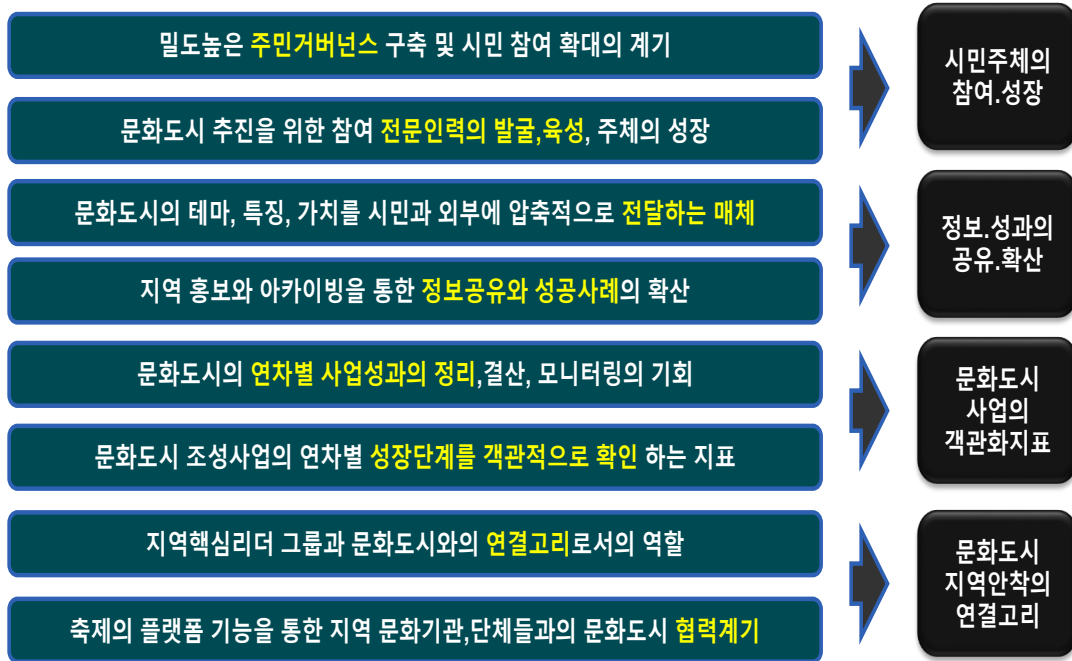
III. 문화도시와 축제

축제 분야에서 시민참여 단계



III. 문화도시와 축제

문화도시에서 축제는 어떤역할을 해야 할까?



III. 문화도시와 축제

기존의 지역축제와 문화도시의 축제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

기존의 지역축제	VS	문화도시 축제
외향적, 목적지향적	목적	내향적, 향유지향적
관주도. 행정주도	주체	시민주도, 행정협력
일시적 조직, 형식적 추진체계	조직	지속적 조직, 책임있는 추진체계
의사결정권의 집중과 제한	권한	의사결정권의 분산과 공유
1명이(소수가) 주인인 축제	주인의식	시민 모두가 주인되는 축제
성과중심, 결과중심	성과평가	과정중심, 경험의 축적
재원의 과도한 공공의존	재원구성	재원다각화, 자생력 키우기
만들어진 규칙을 제공	규칙과 질서	스스로 만드는 놀이의 규칙
VIP - 차별과 의전, 형식과 포장	관객의 층위	모두가 VIP - 내용과 자존감
일상과 무관, 분리	일상과의 관계	일상과 연계, 영향, 연장

문화도시형 축제의 기획 프로세스 - 연수C페스타



문화도시의 축제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

축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Process 로서의 축제

- 과정이 없는 축제는 지속되지 않는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 과정이 없는 축제는 주인이 없다. *다만, 방문객만 존재한다.*
- 과정이 없는 축제는 기록되지 못한다. *다만, 사진만 남을 뿐이다.*
- 과정이 없는 축제는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다만, 참가할 뿐이다.*
- 과정이 없는 축제는 스토리가 없다. *다만, 소비될 뿐이다.*
- *그래서 과정이 없이는 축제도 없다. 다만, 행사가 있을 뿐이다.*

III. 문화도시와 축제

문화도시의 축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What? When? Where? How? Why? Who?

콘텐츠가 달라야 한다. → What?

장소가 달라야 한다. → Where?

방법론이 달라야 한다. → How?

목적이 달라야 한다. → Why?

주체가 달라야 한다. → Who?

Who!

III. 문화도시와 축제

법정문화도시 - 1차 7개도시와 대표축제

지역	도시명	테마	지역 대표 축제
강원	원주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경기	부천	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부천영화제
제주	서귀포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도시	서귀포 칠십리 축제
부산	영도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영도다리 축제
충북	청주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청주 직지축제 / 청주공예비엔날레
충남	천안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흥타령춤축제
경북	포항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국제불빛축제 /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III. 문화도시와 축제

법정문화도시 - 2차 5개도시와 대표축제

지역	도시명	테마	지역대표축제
강원	춘천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적 삶이 보장되는 전환문화도시	춘천마임축제 / 춘천 막국수 닭갈비축제
강원	강릉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시나미(시나브로의 방원) 강릉	강릉단오제/ 강릉커피축제
인천	부평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풍물대축제
전북	완주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경남	김해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가야문화축제



IV. 문화도시 강릉의 축제

강릉의 축제들



IV. 문화도시 강릉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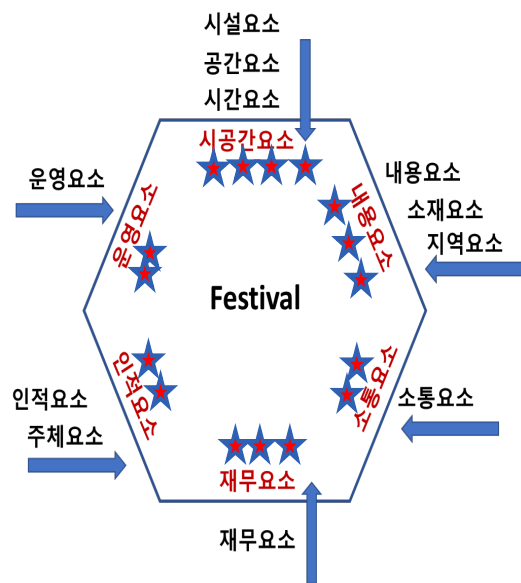
강릉단오제와 강릉의 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단상

- 단오제는 **전통축제의 끝판왕**으로 전통축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있다.
- 강릉의 시민들은 단오제를 **강릉의 문화와 일상을 지탱하는 큰 뿌리**라고 생각한다.
-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심리적 거리감이 1/2로 축소되었다. **전통축제의 도시 강릉의** 가능성이 커졌다.
- 강릉단오제는 **뿌리깊은 이해관계 그룹**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변화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 원로, 어르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위계질서**로 다른세대의 젊은 의견수용이 어렵다.
- 단오제로 만들어진 **강릉시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축제를 만들기 어렵다.
-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은 운영관리의 한계로 **프로그램의 완성도** 편차가 크다.
- 강릉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고정된 도시이미지**를 축제로 다양화 할 수 있다.
- 강릉의 전통문화, 문화재, 전통연희를 축제화하여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원형성을 지키면서 **동시대와의 만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자생적 도시브랜드 축제로서의 **커피축제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한다. (취향, 상품, 상권, 여행)

IV. 문화도시 강릉의 축제

축제의 6가지 기획요소의 관점에서 본 강릉의 축제

6가지 기획요소	구성	내용
시공간 요소 (Time & Place)	시간요소 공간요소 시설요소	• 개최 시기, 기간, 운영시간, 런닝타임 등 시간 전략 수립 · 개최장소, 접근성, 동선 전략, 환경연출 등 공간전략 수립과 현장 시설과 설비를 기획하는 하드웨어 요소를 포함하는 핵심적인 기획요소.
내용 요소 (Contents)	내용요소 소재요소 지역요소	• 놀이·공연·체험·전시 등 프로그램 기획, 축제의 내용을 이루는 소프트웨어 요소 • 축제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소재, 컨셉 등 축제의 테마 관련 요소 • 축제 개최지역의 특성, 정체성, 지역문화 반영 등 지역연계 요소를 포함하는 핵심 기획요소
인적요소 (Humanware)	주체요소 인적요소	• 추진조직구성, 조직도, 의사결정체계 등 축제 추진체계 기획 • 인력 채용, 인력배치, 인력양성, 인적 네트워크 관리 등 휴먼웨어 관련 기획요소
재무요소 (Finance)	재무요소	• 자원 조성, 예산기획, 예산관리 및 자금조성, 경제효과, 협찬 후원 등 재무 관련 업무의 기획요소 • 축제의 마켓 기능과 관련한 요소
운영요소 (Management)	운영요소	• 축제현장관리, 현장운영, 관객 입퇴장관리, 시설 안전관리 등 축제 실행 관련 기획요소
소통요소 (Communication)	소통요소	• 축제홍보, 관객마케팅, 매체 기획 및 발행, 내외부 소통 채널 관리 등 기획요소



인간탐쌍기에서 배우는 지역공동체 축제의 지침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공동체 지수

OECD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우리나라 순위 (총 40개국)

전체 순위	30	환경	40
주거	36	시민참여	13
소득	23	건강	10
일자리	27	주관적 웰빙	33
사회적 관계	40	안전	25
교육	13	일과 삶의 균형	37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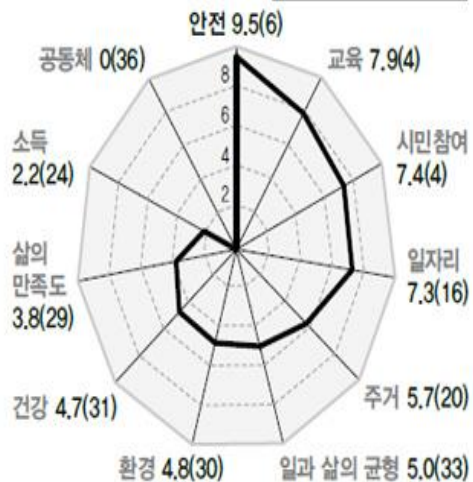
낮은 공동체 지수
(Community, Social Support)

1위 아이슬란드 97% vs 40위 한국 76%

2015년 한국의 '더 나은 삶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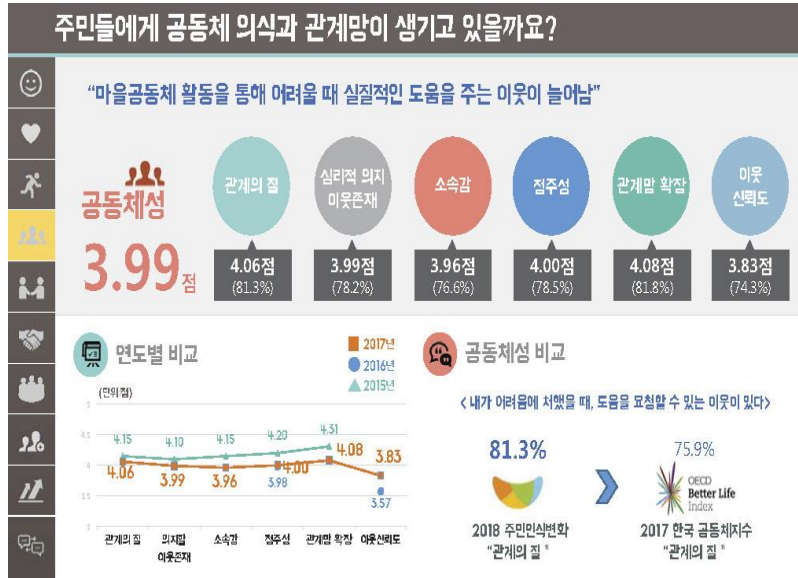
(단위: 10점 만점, 괄호 안은 순위)

종합 평균점수 5.3(27)



V. 문화도시와 공동체 축제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지수



V. 문화도시와 공동체 축제



리더쉽

- 기꺼이 받침이 되어주는 리더
- 가장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리더

역할분담

- 어떤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하기
-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빈틈없기



비전 세우기

- 하나의 목표 바라보기
- 한 방향으로 집중하기



시간의 축적

- 매주 함께 연습하기
- 정직하게 호흡맞추기
- 200여년의 역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2010)



열정, 성취

- 함께하는 성공의 기쁨
- 열정과 환호, 성취감의 공유
- 성공하는 연습



격려. 재도전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 다시 도전하기



규칙

- 함께 만드는 게임의 규칙
- 질서의 미학





참여와 지지

- 믿음의 근간을 만드는 동료들의 지지
- 함께 버티는 힘, 도전의 원천
- 참여로 만드는 공동체



신뢰

- 공동체 활동의 출발이며 종착점
- 아날로그적 소통과 스킨십으로 만들어지는 관계의 힘

인간탐쌍기에서 배우는 지역공동체 축제의 지침

리더쉽 역할분담 비전세우기 시간의 축적

격려.재도전 규칙 참여와 지지 신뢰



8가지 공동체 활동의 지침을 지키고 키워낸 지역 공동체는
공동체 문화 축제의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전통사회 축제, 현대사회의 공동체 축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능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치유

- 축제를 통해 경험하는 강렬한 일탈성은 강력한 정서적 치유를 통해
=> 고통, 상처,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상을 회복시키는 정서적 원점효과를 가져옴
- 사회적 관계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정서적 상처를 발생시킴
=> 축제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치유의 기능을 담당 => 정례적 축제 개최의 이유
-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는 준비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동질감을 통해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함



토론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김문란
단오제사무국장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김문란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



강릉단오제와 강릉의 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단상

- 단오제는 **전통축제의 끝판왕**으로 전통축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있다.
- 강릉의 시민들은 단오제를 **강릉의 문화와 일상을 지탱하는 큰 뿌리**라고 생각한다.
-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심리적 거리감이 ½로 축소되었다. **전통축제의 도시 강릉의** 가능성이 커졌다.
- 강릉단오제는 **뿌리깊은 이해관계 그룹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변화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 원로, 어르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위계질서**로 다른세대의 젊은 의견수용이 어렵다.
- 단오제로 만들어진 **강릉시민들의 눈높이**을 만족시키는 축제를 만들기 어렵다.
-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은 운영관리의 한계로 프로그램의 완성도 편차가 크다.**
- 강릉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고정된 도시이미지**를 축제로 다양화 할 수 있다.
- 강릉의 전통문화, 문화재, 전통연희를 축제화하여 **사계절 축제의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원형성을 지키면서 **동시대와의 만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자생적 도시브랜드 축제로서의 **커피축제의 확장성**에 주목해야 한다. (취향, 상품, 상권, 여행)

발제문 <문화도시와 축제> 내용 발췌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 성공적 1차 만남



- # 단오신주
- # 로컬콘텐츠 개발
- 온라인 플랫폼
- 스토리텔링
- 상품 이미지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 시민공동체의 재발견과 시대에 맞는 결합 지점 모색



시민 참여로 빛나다_ 참여하는 단오정신을 보여준 14,692명(2019년 기준)

5,659세대가 3kg 쌀을 내며 동참했던 신주미/신통대길 길놀이에는 20개 읍면동 3,293/ 50000명의 시민대합창/ 강릉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500여명이 공연자가 되는 스마일 한마당 행사
 시민마켓에는 시민 240여명이 셀러

민속놀이와 단오체험촌을 주관한 13개 단체 705명의 회원

씨름대회, 그네대회, 투호대회, 줄다리기대회, 윷놀이 대회 등 민속놀이는 5개 단체 576

단오체험촌 주관단체 129

310명의 자원봉사자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는 단오문화 전환 모색



- # 단오문화 상설 체험
- # 단오콘텐츠 및 상품개발
- # 신통대길 길놀이와 문화예술의 결합, 문화매개자 양성
- # 풍류도시 강릉

문화도시와 강릉단오제 |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질문



- ✓ 우리는 왜 축제를 하는가
- ✓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은 즐거운가
- ✓ 축제를 하면서 사람과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 ✓ 지역문화의 창조력과 상상력이 발현되고 있는가?
- ✓ 축제를 하면서 환경에 빚지고 있지 않은가?

토론

문화도시와 강릉국제영화제

노대식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장

문화도시와 강릉국제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장 노대식

영화제 개요

- 2019. 11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7일간 80편)
 - * 2020. 8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출범
- 2020. 11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3일간 25편, 코로나 인한 축소 개최)
- 2021. 10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10일간 116편)
- 조직구성: 이사장, 예술감독, 프로그래머, 사무국(6개팀)

비판점

- 국제영화제로서의 권위와 수준의 한계
- 지역 기반 영화제로서의 시민참여 저조
-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안책 불분명
- 과도한 시비 지원금 문제
- 사단법인 및 사무국 구성의 불안정
- 지역 영화인 상시참여 구조 미비
- 기타 지역 문화행사 연계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미비

방향성

- 국제영화제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대안과 비전 제시
-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페스티벌 개최
- 지역 영화계, 문화계와의 연대 발전
- 다양한 세대, 계층의 시민 참여 및 지역 경제인과 상생발전

준비해야 되는 것

- 연중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센터, 지역대학, 독립극장, 영화단체, 동호회 등)
- 독립과 대안 (사단법인 독립성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사무국 구조 확립)
- 다 계층 시민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확보
- 대중친화, 관객 중심 (중고교생 참여, 영화의 도시 기틀마련) - 극장으로
- 전문성과 독립성, 국제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

강릉국제영화제의 경우 창설 첫해의 우여곡절과 코로나 팬데믹의 2회를 지나 올해 3회를 개최하였음. 여러 착오와 실기, 외부의 비판과 오해, 한편의 격려가 있는 상황임.

현재 3회 영화제 정산과 더불어 내부 평가를 진행중이며, 내년초에는 외부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하고 폭넓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내부적으로는 집행위원회 신설, 사무국 조직 개편, 주 사무실 이전을 계획중이며, 프로그램 전문위원(프로그래머)을 추가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춰갈 예정임.

사무국 팀장급 인력을 최소한 연간 계약직으로 하여 조직 안정성 및 연차 사업, 연차 계획이 가능하게 하고 지역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계획임.

시민 참여 및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한국영화 전문 프로그래머를 위촉하고 국내장편영화 경쟁부문을 신설할 계획임

국제영화제의 경우 이중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함

전문영화제로서 기능하기 위한 독립적, 전문적 위상이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의 영화제(축제, 페스티벌)로서의 시민참여와 대중성 확보가 절실함. 또한 시비, 국비의 지원과 외부 기부, 협찬금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임.

10일간의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국제영화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및 전문가 그룹의 연간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임. 영화제 기간의 반짝이는 홍보 및 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극장에 관람객이 모일 수 있는 연중 사업에 집중해야 함.

예를 들면,

-독립극장 신영과 협업하거나, 임시 상영관을 이용해 연중 정기 상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영상미디어센터 등 지역 영화인 거점을 통해 실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촬영, 후반작업, 음악작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

-각급학교의 특화교육, 방과후 교육, 동호회 교육에 참여 지원하는 것 등.

-지역 각종 전문 영화제(인권영화제, 장애인영화제..)와 연대 협력 하는 것

-지역 문화단체,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것.

결국, 영화 촬영이 많고 영화 제작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즐기고 영화와 관련된 문화적 수혜를 누릴 수 있어서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화공동체로서의 의미와 결속을 되새기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토론

문화도시에서의 축제는?

정운성

강릉문화원 지역문화팀장

문화도시에서의 축제는?

강릉문화원 지역문화팀장 정운성

공연예술과 축제기획에서 남다른 경륜과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윤성진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고 관주도의 문화기획자 양성과 배치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민간문화기획자 양성의 요람 한국문화기획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문화도시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시민 활동을 강조하셨고 특히 문화도시 축제에서 시민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강릉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시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지역문화 정체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선생님의 발표문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역할이 질의자이기 때문에 발표문을 읽으며 느낀 몇 가지에 생각에 대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청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지역축제와 문화도시 축제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문화도시 축제는 보다 “내향적이고 향유지향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90년대 이후 지역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예술경영이나 문화콘텐츠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축제는 하나의 문화상품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영하여 유·무형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향적이고 향유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축제보다 시민참여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는가? 보다 시민들이 축제를 얼마나 즐기고 그 안에서 비일상적 경험을 통한 재생이라는 축제의 원형적 기능에 보다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축제의 목적과 가치는 축제의 본질적 가치 구현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강릉단오제를 이야기하시며 “지역 원로와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위계질서로 다른 세대의 젊은 의견수용이 어렵다.” 그리고 “단오제로 만들어진 강릉시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축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강릉단오제는 정형화된 축제가 아닌 다양함이 살아있는 축제다.” “강릉시민들은 축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높아 제대로 축제를 즐긴

다.”라고 수정하신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강릉은 강릉단오제라는 메머드급 축제를 가진 도시입니다. 강릉단오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중 하나로 강릉단오제에는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역사적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온 축제입니다. 과거 단오제는 단오굿을 중심으로 단오의 세시 풍습이 결합된 축제였습니다. 여기서 굿은 지배층의 종교가 아닌 서민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온 민간신앙이었기에 단오제는 애초부터 서민들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재 제도가 정비된 60년대 중반까지 강릉단오제는 중앙시장 상인들의 힘으로 이어왔고 그 후 강릉문화원이 40년 가까이 민간 주도로 강릉단오제를 운영하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된 후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를 독립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에서 강릉단오제는 줄곧 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기업과 상인, 단체와 시민들의 십시일반 성금으로 축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호응해 관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강릉단오제는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커져갔고 오늘의 메머드급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이 바로 진정한 거버넌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는 관이 주도해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해 시민이 스스로 힘을 길러 여기에 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때 진정한 거버넌스가 기능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게 바로 강릉단오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강릉단오제의 견고성과 강한 지역성으로 변화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릉단오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또한 커피축제나 강릉문화재야행, 명주인형극제처럼 다양한 형식의 축제가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강릉사람들에게는 축제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토론자는 강릉단오제는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변화를 수용하는데 보다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관 주도 축제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지역문화기획자들이 적극적인 도전의식과 공동체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자의 범박한 질의를 마치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문화도시 사업을 펼쳐내고 계신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론

강릉 축제의 변화는 시민으로부터

최진영
문화민회 회장

강릉 축제의 변화는 시민으로부터

문화민회 회장 **최진영**

강릉에서의 축제를 살펴보자.

현재 강릉에서 치러지고 있는 몇몇 축제를 살펴보면 신년해돋이축제, 망월제, 경포벚꽃잔치, 장덕리 복사꽃축제, 풍호연꽃축제, 사천 개드림축제, 국제 청소년예술축전, 강릉 단오제, 교산허균문화제, 주문진오징어축제, 경포섬머페스티벌, 정동진독립영화제, 강릉 커피축제, 강릉국제영화제, 경포비치비어페스티벌, 강릉문화재야행, 소금강청학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년 간 수십 개가 펼쳐지는 곳이 강릉이다. 이 축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나 그동안 강릉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기획자와 주최자가 아닌 축제를 즐기고 참여해본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요 근래 전세계를 휩쓴 오징어게임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오징어게임이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축제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진다. 오징어게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중장년 이상의 나이대에서나 알만한 옛날 놀이이다.

그런데 이것에 매력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작품을 처음 접한 한국인과 외국인들은 이 게임자체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독특하고 재미있는 놀이적 특징의 룰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 내용을 이해해 가며, 주위에 시청자들을 파생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축제로 이야기하자면 이해하기 쉬운 주제의 축제,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축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며 독특한 축제를 만들어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기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축제를 살펴보자.

위의 이야기처럼 신선하고 재미지고 간단명료히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의 축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혹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뻘한 축제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멋지게 불꽃을 쏘고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의미없는 공연을 하며 틀에 박히게 하는 개막식, 각 유관기관들과 단체들의 홍보부스가 차지하는 축제공간, 왜 해야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체험들, 작년에도 보고 그 전에도 늘 보이던 먹거리와 난장들, 이런 요소들이 첫 기획에서는 좋은 시도였고 새로움이었지만 어느순간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 봐야 한다. 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또 하나, 축제가 지나가면 항상 지역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다. 지역의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와 예년에 비해 방문객수가 늘었다는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주최의 입장에서는 축각이 곤두서는 일 이겠지만(차년도 지원사업 문제라던지) 그보다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는지, 무엇을 더 가꾸고 전승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결국 축제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좋은 축제가 오래 지속되려면 지역민들의 결합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보자면 현재 강릉에서 치러지는 단오를 비롯한 각 축제들은 스스로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단오의 경우를 보면 상설조직(단오제위원회)의 가동으로 축제의 전승과 운영을 유기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콘텐츠가 신통대길 길놀이가 아닌가 한다. 각 동마다 동네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내 놓음으로서 지역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커피축제는 어떤가? 지역내 커피관련 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여 이제는 강릉을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커피1번지로 만들지 않았나? 지역 특산물도 아니고 특별한 가공장도 있지 않았지만 지역민의 힘으로 축제를 열었고 이어오고 있으니 이 또한 강릉의 대표 축제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얘기해보자.

현재 강릉축제들에 어떤 킬러 콘텐츠가 있는가?

현재의 콘텐츠들은 시민들이 즐기기에 진정 적합한가?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가?

10년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들인가?

축제기간 전체를 관통하고 시민들을 비롯한 참가 관광객들이 이것만은 꼭 보고 즐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내 개인의 경험치가 적거나 특이 성향이어서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단오의 경우 예전 강릉농고, 강릉 상고의 농상전 축구시합이 나름 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상황이고 커피축제의 경우 100인100미가 어떤 의미에서 킬러의 역할을 하는 이벤트이겠지만 이를 대하는 시민들에게도 즐기기 좋은 행사인지는 생각해봐야한다. 문화재 야행의 경우 올해를 보자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드론쇼가 이에 해당하겠지만 지속될, 본질적인 콘텐츠인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태국의 송크란처럼 물싸움을 새로 할 이유는 없으며, 이탈리아의 어느마을처럼 오렌지를 서로에게 집어던지며 일탈을 하기에는 당연히 맥락이 없다.

하지만 이젠 더 늦기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단오그네를 높이만 탈게 아니라 그네를 이용해 멀리 뛰기를 하면 어떨까? 난장을 옛날 어느 시절처럼 구역을 확장하면 어떨까? 없어진 아바위 대신 전시민 딱지 한마당은 어떨까? 문화재야행에서 시민들에게 밤새 문화재 보초를 서게하면 어떨까? 낮에도 밤이라고 우기고 선글라스를 끼고 축제하면 어떨까? 커피축제에 커피콩 던지기 싸움놀이를 하면 어떨까?

물론 어려운 이야기지만 소수의 준비인원보다 시민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강릉이 더 즐거워졌으면 좋겠다.

결론은 판에 박히고 행정의 우선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기다리고 관심을 갖는 시민 주도의 축제로 한 걸음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